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에제47, 1-2.8-9. 12

[화답송] 시편46(45), 2-3.5-6.8-9(◎5)

◎ 강물이 즐기 즐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강물이 즐기 즐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제 2독서] 로마5,5-11

[복음 환호송] 2역대7, 16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복 음] 요한2, 13-22

성가	8시 미사	입당 69	봉헌 216 512	성체 151 198	파견 68
	11시 미사	입당 69	봉헌 216 512	성체 151 198	파견 68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32주일(11월 9일)		연중 제33주일/평신도주일(11월 16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 23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로(명국)	황테레사(혜정)	임투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베네딕토(환준)	심미카엘(태규)	정프란치스코(일환)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문골롬바(지영)	최베네딕타(수영)	심헬레나(승화)	정글라라(영희)	김엘프레다(수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교황 할아버지 오시던 날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퇴근 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예정 없이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성당에 가셨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성당 사무실은 신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사무원 앞으로 걸어 나가 ‘죄인’ 인 듯 “죄송해요. 내년에는 많이 울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원의 표정은 참으로 냉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원이 원가에 필기한 후 건네준 종이를 들고 들어간 곳에는 본당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어머니는 또 죄인이 되셨습니다. “신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분의 대화 내용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부가 되어 돌아켜보니 그때는 판공 기간이었고 다음 해의 교무금과 건축금을 새롭게 책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나게 뛰어놀던 그 성당은 건축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날은 최고의 천사 같은 어머니께서 사무원과 본당 신부님 앞에서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저 ‘죄송하다.’ 라는 말 밖에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희동 성당은 새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 와서 제일 먼저 붙인 로고는 ‘새 성전 봉헌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친 로고는 성전 제대 위에까지 올려놓은 배너광고의 ‘봉헌금 만원이 성전건축에는 희망과 축복을’ 입니다. 이 글을 쓰며 추운 겨울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성당에 갔던 어린 한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갑자기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성전 건축이 과연 기쁜 일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끔씩 신자들의 건축금 봉헌이 줄어들면 몇몇 신자들이 저에게 귀뜸을 합니다. “신부님, 가정 방문을 하세요!”, “신부님, 구역미사를 하시면서 건축금 얘기를 하세요!”, “성령 기도회를 해 보세요. 효과가 바로 나온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죄인이 되어버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코스모스 활짝 핀 해미읍성에 갔다가 만난 떡볶이집 아주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교황 할아버지는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얼굴이 참 밝고 이뻐유~” 그 아주머니는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교황 할아버지가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

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목욕까지 하고 그분을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할아버지를 멀리서였지만, 세 번이나 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교황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그 아주머니의 삶에 세우신 것은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우리 연희동 성당은 11월 30일에 입당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공동체는 많지는 않지만 1년 동안 조금씩 절약하여 모은 천만 원 정도의 기금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쌀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건축금도 부족한데 굳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하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성전 건축을 하느라 잊어왔던 이웃사랑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나눔을 통해 우리 지역의 많은 이들의 가슴에 하느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입니다.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지는 밤하늘의 십자가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밑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길 바라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성훈 요사팍 신부
인천교구 연희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우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

오늘은 로마의 주교좌 성당인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으면서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라테라노 대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대성전을 들어가다 보면, 문에는 “로마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요 으뜸”이라는 라틴어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라노 대성전의 봉헌 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있습니다.

대성전 맞은편에는 거지 차림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상이 있는데 전해 오는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 교황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설립 승인을 망설이던 중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꿈속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당시 교황청이던 라테라노 대성전이 허물어져 가는데, 당황하는 교황님 앞에는 거지차림의 청년이 자신의 두 어깨로 대성전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설립을 인준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황님의 꿈에 나타난 모습대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인 채 무너져 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하느님과 인간을 위한 헌신,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청빈과 단순함,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돈으로 바꾸어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인 동물들도 각 가정에서 가져와야 했으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 안에서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기 마련이라 점차 부정과 부패에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환전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 2,16)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를 질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진정한 성전은 바로 그리스

도교 신자의 몸과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 (1코린 3,16)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머무시는 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역시 우리가 늘 정화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의 성전인 자신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인 이웃형제를 소중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한 마음, 착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주변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허영엽 신부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한결같이 영원한 바위이신
주님을 영원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마태 5,3; 이사 26, 3-4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시간을 사랑하는 영성

내가 살아있기에 새롭게 만나는 시간의 얼굴
 오늘도 나와 함께 일어나
 초록빛 새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네요
 하루를 시작하며 / 세수하는 나의 얼굴 위에도
 아침인사를 나누는 / 식구들의 목소리에도
 길을 나서는 나의 신발 위에도
 시간은 가만히 앉아/어서 사랑하라고 나를 재촉하네요
 살아서 나를 따라오는 시간들이
 이렇게 가슴 뛰는 선물임을 몰랐네요
 - 이해인의 시 <시간의 선물> -

얼마 전에 우리 수녀원을 방문한 내 여중 시절의 친구
 들을 만나니 옛 앨범과 대조해야만 그 모습을 알 수 있
 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휴양을 하기 위해 본원에 들어온 환자 수녀들을 만나
 면, 수십 년 전 건강하고 젊은 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
 이 찡해 오곤 합니다.

책에서 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았던 독자들이 지금
 의 나를 만나면 그 달라진 모습에 실망감을 표현해서 나
 를 종종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할 말이
 없으면 곧잘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는데, 비록 체면상 마
 지못해 하는 말이라고 해도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듭니
 다.

“왠지 전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금의 수녀님
 모습이 더 좋아요.” 누구라도 세월이 주는 변화는 막을
 수가 없고 이 무게를 선물로 받아 안아야 평화가 찾아옵
 니다. 거울을 자주 보진 않지만 얼굴의 주름과 흰머리가
 말해주는 나의 노년을 깊이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성당이나 식당에 앉아 까마득한 후배들을 바라보면 정
 말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곤 합니다. 빨리 가는 시
 간에 대한 불평과 탄식을 새로 오는 시간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삶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체 시간이 ‘왜 이리도 빨리 가는지!’ 라고
 푸념하고 싶을 때 나는 ‘가기도 하지만 다시 오는 시간
 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라고 바꾸어 말해 봅니다.

어느새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새로 오는 시간들이 고맙고 소중하고 다시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은 기쁨에 새삼 설렘 적이 많습
 니다.

게으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없지 않지만, 내
 게 남아 있는 시간들을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
 하는 노력이 오늘의 나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일상의 길 위에서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고, 한 번이
 라도 더 웃고,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하는 수련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게 오는 시간을 새롭게 사랑합니
 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두려움의 무게로 살아오지만 이제
 그와는 못할 말이 없다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그
 에겐 늘 담당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시간은 날마다 지혜를 쏟아내는 이야기책 그러나 책장
 을 넘겨야만 읽을 수 있지 살아있는 동안 읽을 게 너무
 많아 나는 행복하다. 살아갈수록 시간에겐 고마운 게 무
 척 많다...고 다시 노래하면서.

이해인 수녀·시인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테살로니카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세상의 종말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오로가 보낸 편지, 곧 테살로니카 전서를 받고 난 뒤에도 그들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착하여 생계 수단을 포기한 채 다른 신자들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이나 바오로의 가짜 편지로 인해 공동체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2테살 2,2)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수습할 필요를 절감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공동체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테살로니카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어떤 표징들이 드러날 것이며 아직은 그 때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예언이나 설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한, 종말이 닥치기 전에 일어날 표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법자는 자신을 그 어떤 것보다 높이 들어 올리고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2테살 2,3-4)

지금은 어떤 것이 무법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입니다.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2테살 2,9-10)

무법자의 방해공작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2테살 2,10)

사람들이 진리와 구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무법자의 온갖 사악한 시도들이 수포로 돌아가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법자의 계획을 성공시키고 실패시키는 일은 사람들

의 선택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법자를 결정적으로 멸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곧, 주님께서 “당신의 입김으로 그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자를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2테살 2,8)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사실 세기가 바뀔 때마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넘쳐났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경계하라고 했던 종말의 징표들도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건 배교자가 있었으며 자신을 하느님 자리에 앉혀 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조차 자신을, 아니면 돈이나 명예를 하느님 위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빚게 될 날, 혹은 온 인류가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이건 지금 ‘좋은 일과 좋은 말’(2테살 2,17)로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 자리에 다른 어느 누구도, 다른 그 무엇도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오로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송혜경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1월 9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박세레나(동신)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신안토니오(영민)	황요세피나
	연	황데레사(미대자)	윤사비나
	연	양마리아(석순)	양마르코
	연	양요셉	양마르코
	연	박돈보스코	양수산나
	연	박베드로/마리아	양수산나
	연	연옥영훈	구세주의어머니Pr.
	연	연옥영훈	김아네스(순이)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박수경/홍정희/외조부모님	양수산나
	연	부모님	정베드로/아가다
	연	부모님 기일	이마태오(영기)
	연	정종실	9구역
11월 1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1월 12일 수	연	세상을떠난레지오단원들	영원한도움의어머니Pr.
11월 13일 목	생	채셀리나 생일	채헬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8	212	29	319
헌 금	\$521	\$1,139	\$26	\$1,686

< 교무금 > \$3,030

구천남(7-12) 김승희(11-12) 조상희(10-12)
 김순이(11) 전숙희(11) 채용분(11) 소명환(11-12)
 이정숙(9-10) 이병열(10-11) 강신호(9-10)
 조승구(12) 이명란(11) 김관수(11-12) 김옥녀(11)
 허동원(11) 천종욱(11) 이건용(11) 심재구(11)
 박일신(11) 김광석(11)

< 성소후원금 > \$70

김승희(10-12) 김순이(11) 전숙희(11) 채용분(11)
 소명환(11-12) 이명란(11) 박일신(11)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강시구 형제님 손자탄생 감사헌금 \$200
 익명 \$10

~~~~~ 오늘은 이상우 마티아 가정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가톨릭교회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위령의 날(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달에는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지내도록 합시다.

◆ 2차 현금 안내

11월 23일 :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대림절 성경 쓰기 : 요한복음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대림특강

일시 : 12월 14일(일) 미사 중

강사 : 조마오로 수녀님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전례단회의 : 11월 13일(목) 미사 후 107호실

◆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일시 : 11월 10일(월) 오후 7시

장소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그룹 오리엔테이션

일시 : 11월 16일(다음주) 오후 1:30 ~ 3:30

장소 : 교육관 106호실

◆ Brown Bag 식료품 무료배급

일시 : 매월 첫째와 세 번째 토요일 10시

문의 : 510-580-7880

11월 구역모임 고린도후서 1-2장

|        |               |             |
|--------|---------------|-------------|
| 7-1 구역 | 11월22일(토)12시반 | 파운더스룸       |
| 9 구역   | 11월29일(토) 6시  | 설승진토마스아퀴나스덕 |
| 10 구역  | 11월30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요아킴회/안나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

일시 : 12월 7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행사 :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 선출

점심식사, 오락(국악 연주 및 노래방)

\* 회원 모든 분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기대합니다.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 11월 10일 ~ 2015년 2월 6일

문의 : <http://ci.catholic.ac.kr>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2014년도 약정하신 교무금과 그 외 약정하신 다른 봉헌금들을 연말 안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당 제대꽃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사무실로 알려 주십시오.

◆ 장례미사 안내

김상실 가를로 형제님 동생이신 김상선 안드레아 형제님의 장례미사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11월 15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1051 Harder Road Hayward, CA 94542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